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 (윤리와 사상)

성명 수험번호 3 제 ()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○○에게

자네가 인간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이 있는지를 질문했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네. 인간이 만드는 사물의 경우,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그 본질에 따라 만들어진다네. 반면, 인간은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네. 인간의 본질을 구상할 신(神)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.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후에 스스로를 만들어 갈 뿐이라네.

- ① 창조주의 계시와 율법에 따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.
- ② 이성을 발휘하여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한다.
- ③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.
- ④ 선형적 도덕 법칙에 대한 복종을 절대적 의무로 수용한다.
- ⑤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.

2.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한 부분에만 있어도 국가를 용기 있는 국가나 지혜 있는 국가로 만들지만, 절제는 국가 전체에 있어야 한다. 절제란 국가에서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중에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라 할 수 있다. 지혜, 용기, 절제의 덕이 발휘되고 서로 조화를 이룬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.

- ① 국가와 개인에서 정의 실현에 필요한 덕은 서로 다르다.
- ② 절제는 이성에 따라 욕구를 제어하는 기개의 고유한 덕이다.
- ③ 정의는 국가의 각 계층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실현된다.
- ④ 지혜를 갖추면 각 사물에 내재한 이상적 원형을 알 수 있다.
- ⑤ 용기를 지닌 방위자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.

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자유는 노예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.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 제도는 유산자뿐만 아니라 무산자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다.

을: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착취를 당하면서 자본을 증식하는 존재로 전락한다.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한다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될 것이다.

- ① 갑: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계획 경제의 산물에 불과하다.
- ② 갑: 국가는 경쟁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을: 생산 수단의 사유화로 계급 간 갈등을 약화시켜야 한다.
- ④ 을: 노동자의 소외 극복을 위해 모든 계급이 연대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자유 실현을 저해한다.

4. 다음은 동양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일체는 인연(因緣)으로 생겨나므로 어떤 것도 공(空)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만일 일체가 공하지 않다면 생(生)도 없고 멸(滅)도 없을 것입니다. 일체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어찌 괴로움[苦]이 있겠습니까?

일체는 오직 식(識)만이 있을 뿐입니다. 경전에서 일체는 오직 마음이라고 말합니다. '마음'은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작용을 포함합니다. '오직'은 외부 대상만을 부정하는 것이지 마음의 작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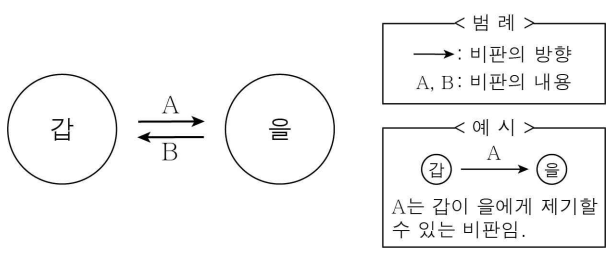
갑



을

- ① 갑: 중도(中道)로써 바라보면 공은 불변의 실체이다.
- ② 갑: 중생의 마음은 인연을 벗어나 자성(自性)을 갖는다.
- ③ 을: 마음의 작용과 무관한 실체가 마음 밖에 존재한다.
- ④ 을: 식은 마음의 작용이며 항상 청정하여 분별함이 없다.
- ⑤ 갑과 을: 만물의 실상은 공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.

5. (가)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람의 마음에 지(知)가 있지 않음이 없고 천하 만물에 이(理)가 있지 않음이 없으나 이를 다 궁구하지 못하여 지에 다하지 못함이 있다. 나의 지를 지극히 하는 것이 치지(致知)이다.</p> <p>을: 지는 물과 같다. 사람의 마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. 막힌 것을 터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치지의 역할이고 이것이 지행합일이다.</p>
(나)	

- ① A: 사물의 이와 마음의 이는 근원적으로 별개임을 간과한다.
- ② A: 불선한 생각의 일어남 자체가 불선한 행동임을 간과한다.
- ③ B: 도덕적 실천을 주재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임을 간과한다.
- ④ B: 사람의 마음에는 만물의 이치가 갖추어져 있음을 간과한다.
- ⑤ B: 천리인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치지임을 간과한다.

6.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선(善)이란 현재 상황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활동에 의해 해결되었을 때 그 활동이 갖는 의미이다. 도덕은 본질상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며, 도덕적으로 더 나은 행위란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경험의 의미를 증대하는 것에 더 기여하는 행위이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도덕적 문제 상황마다 옳은 선택이 존재한다.
 - ㄴ. 도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.
 - ㄷ. 도덕적 지식은 과학적 검증에 의해 절대적 진리가 된다.
 - ㄹ. 도덕적 행위는 결과의 유용성과 관계없이 가치를 지닌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7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며,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. 지성적 덕은 대체로 교육을 통해 생겨나고 성장하며,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.
 을: 인간의 최고선은 창조되지 않은 선, 곧 신이다. 신의 섭리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규제되며,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써 인식한 것이 자연법이다.

- ① 갑: 행복은 유일한 선이며 덕을 갖추어야만 성취될 수 있다.
- ② 갑: 실천적 지혜는 중용을 파악하게 해 주는 품성적 덕이다.
- ③ 을: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신의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④ 을: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신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.
- ⑤ 갑과 을: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.

8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양극단[二邊]을 아는 사람은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.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 하니 그는 욕망을 되돌아보지 않으므로 번뇌의 사슬이 없으며, 탐·진·치에 속박된 마음에서 벗어나 지혜가 밝아지므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만물은 오온의 일시적 결합에 따라 생겨난다.
 - ㄴ. 현세의 업(業)은 내세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 - ㄷ. 열반의 경지에 이르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.
 - ㄹ.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바른 삼매[正定]에 이르는 것이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9. 현대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. 왜냐하면 노예의 주인이 관대하여 실질적 간섭이 없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.
 을: 자유의 최소한은 지켜져야 한다. 여기서 '최소한'이란 각 개인의 본성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. 불가침의 영역을 정할 때 옹호되는 자유는 언제나 '~로부터의 자유'이다.

- < 보 기 > —
- ㄱ. 갑: 비지배가 모든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 - ㄴ. 을: 개인의 자유의 영역과 간섭받지 않는 영역은 비례한다.
 - ㄷ. 을: 정부가 주도하여 적극적 자유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.
 - ㄹ. 갑과 을: 자의적 간섭을 배제하는 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0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모든 인간이 만물에 대한 자연권을 행사하는 한 전쟁 상태를 피할 수 없다. 인간은 전쟁 상태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도모하기 위해 리바이어던을 탄생시킨다.</p> <p>을: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보존을 위해 정부의 법이라는 성역을 찾아간다. 바로 여기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.</p> <p>병: 사유 재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인간들은 각자의 신체와 힘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두기로 한다.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며 단일한 것으로, 분할될 경우 파괴된다.</p>
(나)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margin-to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font-size: small;"> < 범례 > →: 비판의 방향 A~F: 비판의 내용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font-size: small;"> < 예시 >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. </div> </div>

- ① A: 사회 계약 이전의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함을 간과한다.
- ② B와 D: 소유권은 사회 계약 이후에 비로소 생겨남을 간과한다.
- ③ C: 자기 이익의 추구는 사회 계약의 목적이 아님을 간과한다.
- ④ E: 입법권은 사회 계약의 주체에게 주어져야 함을 간과한다.
- ⑤ F: 주권은 사회 계약으로 부여되는 절대 권력임을 간과한다.

11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한울을 네 몸에 모시고서[侍] 어디서 찾으려는가? 글을 모르는 그대가 책을 접고 한울을 믿고 한울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도 도덕이다. 우리의 학문은 마음공부일 뿐이다.
 을: 일원상(一圓相)은 참 일원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다. 공부하는 사람이 일원상으로 참 일원을 발견하고 수양하면 일원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될 것이다.

- ① 갑: 효제의 도리를 버리고 한울의 가르침을 행해야 한다.
- ② 갑: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한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.
- ③ 을: 진리를 찾는 수행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.
- ④ 을: 물질 개벽의 시대를 동양의 정신개벽으로 이끌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유교적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.

12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이성적 존재는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수립한 법칙에만, 그리고 자신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그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정해져 있다.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법칙의 수립 자체가 존엄하기 때문에,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울은 이성적 본성이 존엄하다는 근거가 된다.

- ①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 목적 자체가 된다.
- ②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.
- ③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인 것은 아니다.
- ④ 행위의 도덕성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에 따라 판단된다.
- ⑤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 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된다.

13.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본연지성은 이(理)를 위주로, 기질지성은 기(氣)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.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다.
 을: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진 것이다.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.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.
 병: 천명지성은 기호(嗜好)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. 천명지성은 선을 즐기고 악을 부끄러워하니 천명지성이 향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면 어긋남이나 그릇됨이 없다.

- ① 갑: 이가 발할 수 있는 까닭은 기에 운동성이 있기 때문이다.
- ② 을: 불선한 감정은 탁한 기의 발이며 그 근본[本]은 천리이다.
- ③ 병: 인간은 선한 기호의 성(性)과 악한 기호의 성을 갖는다.
- ④ 갑과 을: 주된 바[所主]가 사단은 이에 있고 칠정은 기에 있다.
- ⑤ 을과 병: 마음에서 욕구[欲]를 완전히 없애야 천리가 실현된다.

14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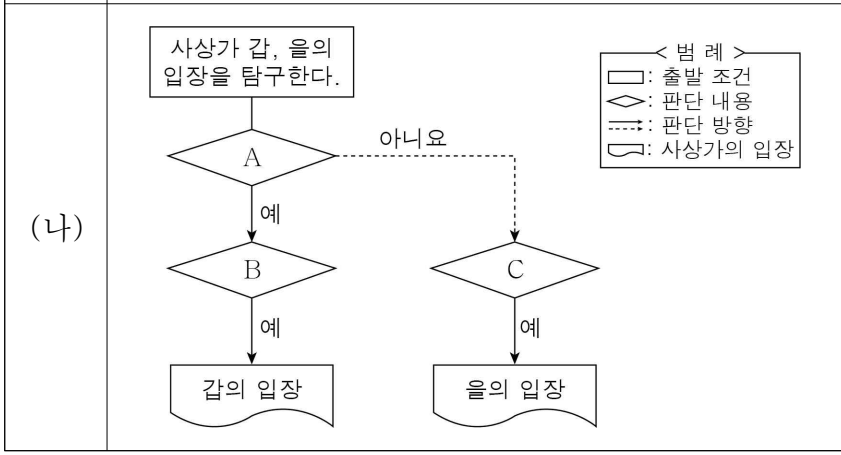
갑: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할수록 감정의 영향을 덜 받으며 자신을 인식할수록 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.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파악될 수 없다.
 을: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이나 의지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은 의지를 막거나 감정과 싸울 수 없다.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< 보 기 >
 ㄱ. 갑: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인식 활동도 신의 양태이다.
 ㄴ. 갑: 신에 대한 사랑은 인과 질서에 따라 발생하는 감정이다.
 ㄷ. 을: 이성은 의지를 이끌 때에만 감정에 대립할 수 있다.
 ㄹ. 갑과 을: 이성과 감정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15. (가)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(가)
 갑: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 탓을 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돌려야 한다.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.
 을: 고통이 모두 제거될 때 쾌락의 크기는 한계에 도달한다.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한, 우리에게는 몸의 고통이 없거나 마음의 고통이 없거나 둘 모두가 없다.



< 보 기 >
 ㄱ. A: 평온한 삶을 위해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?
 ㄴ. B: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 내용은 이미 결정된 것인가?
 ㄷ. C: 쾌락이나 고통이 가져올 득과 실을 측정해야 하는가?
 ㄹ. C: 덕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쾌락을 줄 때 가치를 갖는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6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참된 사람[真人]이 되어야 참된 앎[眞知]을 알게 된다. 그는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고 일이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. 앎이 도(道)에 이르면, 자연에 따라 사람을 대할 뿐 인위적으로 자연의 변화에 참견하지 않는다.

- ① 만물 중 참된 앎을 갖춘 사람에게만 도가 내재되어 있다.
- ②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성인이 제정한 예(禮)를 따라야 한다.
- ③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는 곳에서는 현자(賢者)가 숭상된다.
- ④ 타고난 덕을 회복하려면 자연적 본성과 인위를 구분해야 한다.
- ⑤ 오감(五感)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절대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.

17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하늘을 본받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. 하늘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[兼相愛] 서로 이익 나누기[交相利]를 바라지,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기를 바라지 않는다. 하늘은 두루 사랑하고 두루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.
 을: 하늘의 도(道)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응답하며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. 이처럼 도는 무위(無爲)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. 만약 임금이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.

< 보 기 >

- ㄱ. 갑: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에게도 손해를 가져온다.
- ㄴ. 갑: 백성이 서로 이익을 나누면 천하의 이익은 줄어든다.
- ㄷ. 을: 백성이 무지하고 무욕하면 나라가 혼란하게 된다.
- ㄹ. 갑과 을: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천하를 어지럽힐 수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18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할 수단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. 그 가치는 강도, 지속성 등 일곱 가지 기준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진다.
 을: 지성과 상상력, 도덕 감정 등의 쾌락이 단순한 감각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.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해도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

- ① 갑: 입법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가 아닌 고통의 회피가 아니다.
- ② 갑: 선악 판단의 대상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이다.
- ③ 을: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과 불일치한다.
- ④ 을: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이 아니라 질만을 고려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나온다.

19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까닭은 그가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. 군자는 인(仁)과 예(禮)로써 마음을 보존한다. 인의예지는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것이며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다.

을: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(僞)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. 또한 소인(小人)을 천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순응하기 때문이다.

< 보 기 >

- ㄱ. 갑: 인은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단서[端]이다.
- ㄴ. 을: 누구나 인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.
- ㄷ. 을: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.
- ㄹ. 갑과 을: 군자와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타고난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20.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되는데 그중 으뜸가는 공동체인 국가는 분명 으뜸가는 선을 추구할 것입니다. 다른 동물도 집단생활을 하지만 언어 능력을 구비한 인간만이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갑니다.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합니다. 본성상 국가에 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입니다.



< 보 기 >

- ㄱ. 인간의 언어 능력은 국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.
- ㄴ. 인간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각각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.
- ㄷ. 국가는 물질적 자족이 아닌 선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다.
- ㄹ. 국가는 인간 본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연적 공동체이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* 확인 사항
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십시오.